AI페퍼스 클럽하우스 광주 이전…연고지 완전 정착

배구단 창단 2년만에 이전 완료 훈련장·트레이닝 시설·구단 사무실 홈구장 페퍼스타디움에 마련 인근 아파트에 선수 숙소 확보 전용식당·치료실 등도 배치 이동거리 단축 경기력 향상 기대

광주 AI페퍼스 배구단이 창단 2년 만에 명실상 부한 광주 연고 구단이 됐다.

선수단이 광주에 머물게 돼 지역 배구팬들이 페 퍼스 선수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선수들의 원정 경기 이동거리가 크게 단축돼 경 기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 배구단(구단주 장매튜) 은 "경기도 용인시에서 광주시로 클럽하우스(선수 단 숙소) 이전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페퍼스는 홈구장인 페퍼스타디움에 훈련장과 트 레이닝 시설을 구축하고 구단과 코칭 스텝 사무실 도 페퍼스타디움에 마련했다.

숙소는 페퍼스타디움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 리에 있는 아파트를 확보했고 아파트 내 선수 전용 식당과 치료실 등도 배치했다.

페퍼스는 "구단 운영과 훈련에 필요한 모든 시설 을 광주에 둠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연고지 정착을



비시즌 기간 훈련을 위해 두 개의 코트를 설치한 페퍼스타디움.

〈페퍼스 제공〉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퍼스는 지난 2021년 9월 공식 출범한 후 곧바 로 2021-22시즌 도드람 V리그에 참가하기 위해 신속하게 선수단 훈련 시설을 마련해야 했다.

이 때문에 연고지인 광주시가 아닌 경기도 용인 시에 위치한 시설물을 대여해 사용해 왔다.

이번 이전으로 선수들의 이동 거리가 연간 약 2000km가량 단축돼, 선수들의 컨디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수들은 보다 쾌적한 환 경에서 훈련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클럽하우스 이전에 따라 페퍼스는 연고지 지역 팬 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내 배구 문화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선수단과 광주시민 300여 명이 함께 지역 환경 정화를 위해 산책을 하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 행

페퍼스 트레이닝 센터.

사를 실시한다.

선수단 숙소 인근 시민을 위한 팬 사인회 등 행사

광주 지역의 아마추어 배구팀과 페퍼스가 운영 중인 유소년 클럽과도 더욱 긴밀한 교류를 할 것으 로 기대된다.

김동언 페퍼스 단장은 "AI페퍼스의 연고지인 광 주시에 정착하게돼 매우 기쁘고, AI 페퍼스가 연고

지역에서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도움을 주신 광주시에도 감사하다"면서 "지역 배구 문화 정 착과 저변 확대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이며, 지역 사회 에 팬들에게도 한층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퍼스는 서울 근교에도 선수단 숙소를 별 도로 마련, 소속 선수들이 개인적 용무로 서울을 방 문할 경우 불편이 없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체고 배건율, 400m 계주서 또 은메달 추가

아시아U 20육상선수권

한국 육상 남자 단거리 유망주들이 아시아주니 어육상선수권대회(20세 미만) 400m 계주 은메 달을 합작했다.

김정윤(경남체고), 김동진(대구체고), 배건율 (전남체고), 나마디 조엘진(김포제일공고)이 이 어 달린 한국 대표팀은 6일 경상북도 예천스타디 움에서 열린 제20회 예천 아시아U20육상경기선 수권대회 남자 400 m 계주 결선에서 40초32의 한 국 고등부 신기록(종전 40초56)을 세웠다.

마지막 주자 조엘진은 네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 했지만, 중국과 태국이 실격 판정을 받으면서 한 국이 2위로 올라섰다.

일본에 이어 2위를 달리던 한국은 마지막 주자 에게 배턴을 넘길 때, 속도를 유지하지 못해 4위까 지 밀렸다.

그러나 두 번째로 레이스를 마친 중국과 세 번째 로 결승선을 통과한 태국이 모두 실격 처리됐다.

일본이 39초76으로 우승했고, 한국은 행운의 은메달을 수확했다. 인도가 40초56으로 3위를 했

4일 남자 400 m (46초73)와 5일 1,600 m 혼성



왼쪽부터 김정윤, 김동진, 배건율, 나마디 조엘진

계주(3분28초30으로)에서 2위를 차지한 배건율

뻤지만, 동료들과 함께 수확한 릴레이 경기 은메

은 사흘 연속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배건율은 "개인 종목인 400m 은메달 획득도 기 달이 더 귀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남자 100 m에서 10초50으로 4위를 해 시상대에 서지 못한 조엘진은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따냈다.

〈대한육상연맹 제공〉

소년체전 2연패 수피아여중 농구부에 격려금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이 7일 전국소년체육대 회 2연패를 달성한 수피아여자중학교 농구선수단 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수피아 여중(교장 서계상)은 제52회 전국소년 체육대회 결승에서 동주여중(부산)을 70-56으로 여유롭게 대파하고 지난 대회에 이어 2연패를 달

임연서(3년)는 최우수 선수로 선정됐다.

수피아여중 농구부는 지난해 제60회 춘계 전국 남여 중고 농구연맹전과 한국중고농구연맹 회장 기 전국 남녀 농구 대회, 소년체전 등 3개 대회에 서 우승했다.

전갑수 체육회장은 "광주시를 대표해 월등한 경 기력으로 우승하며 2연패 쾌거를 이룬 선수들이 자랑스럽다" 며 "어려운 여건에도 피땀 흘려 훈련 해준 선수들이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학교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격려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동강대, 6년 연속 대학스포츠협의회 지원사업 선정

동강대학교(총장 이민숙)가 한국대학스포츠협 의회(KUSF)로부터 6년 연속 재정 지원을 받아 운동부 운영과 선수들의 실력 향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동강대 운동부는 최근 KUSF가 발표한 '2023 대학 운동부 평가 및 지원 사업' 선정 결과 4000여만원을 지원 받는다.

KUSF는 대학운동부의 육성 지원과 대학 스포 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 육진흥공단의 후원을 받아 2015년부터 '대학운동 부평가 및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동강대는 2018년부터 KUSF 재정 지원을 받아 야구부와 축구부 등 2개 운동부 경기력 향상에 힘 을 쏟고 있다.

2004년 창단된 야구부(감독 홍현우)는 전국대 학야구대회 2014~2016년 하계리그 3연패 위업을 달성하며 우승기를 영구 보관 중이다. 또 동강대 야 구부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 5년 동안 5명의 프로 야구 선수를 배출했고 2학년 임주찬(내야수)은 대 학 올스타에 선발돼 6일 대전에서 열린 '제1회 한 화 이글스배 고교·대학 올스타전'에 출전했다.

2010년 창단한 동강대 축구부(감독 임종우)는 국가대표 대학 선발팀으로부터 여러 차례 부름을 받아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했다. 또 광주FC를 비 롯해 전주시민축구단, 시흥시민축구단 등 프로 무 대에서 뛰고 있다.

운동부 부장을 맡고 있는 노재성 교수는 "선수 들이 실력을 탄탄히 쌓아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뒷받침하겠다"고 말했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프로당구 PBA 웰뱅, 김임권 등 4명 신규 영입

프로당구 PBA 웰컴저축은행 웰뱅피닉스는 김 임권과 이상대, 히가시우치 나츠미(일본), 최혜미 까지 4명의 신규 선수를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웰뱅피닉스는 지난 5일 서울시 용산구 웰컴금융 타워에서 신규 선수 입단식을 열고 7인 체제 팀 구 성을 완료했다.

웰뱅피닉스는 '당구 황제' 프레데리크 쿠드롱 (벨기에)을 주축으로 비롤 위마즈(튀르키예), 김 예은까지 지난 시즌에도 뛴 기존 선수 3명에 2023

광주예술의전당

-2024 팀리그 드래프트를 통해 선발한 김임권, 이 상대, 히가시우치, 최혜미까지 가세해 '드림팀'을

이번에 합류한 김임권은 지난해 웰뱅 챔피언십 에서 쿠드롱과 명승부를 펼친 끝에 준우승을 차지 하며 주목받은 선수다.

이상대는 2022-2023 하나카드 챔피언십 준우 승을 차지하며 팀 리그 영입 1순위로 꼽혔던 선수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범죄도시3

2관 범죄도시3

3관 범죄도시3

4관 범죄도시3, 그 여름

5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6관 범죄도시3, 익스트림 페스티벌 9관 트랜스포머: 비스트의 서막

포켓 몬스터 DP: 아르세우스 초극 의 시공으로, 7관씨네커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Volume 3,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8관씨네커플 인어공주, 스즈메의 문단속, 부기맨



2023 빈 심포니 & 장한나 내한공연 일시: 2023-06-11(일) 17: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문의 062)613-8233

